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 ①

2014년 9월 24일(수), 오후 2~4시

김해의 지명에 대하여

민 공 기

창원대학교 국문과 교수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 ①

김해의 지명에 대하여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621-900)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핸드디자인 / 070-7380-0641

1. 우리나라 지명 일반에 대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유독 관심을 갖는다. 지명들에 대한 관심도 그 중의 하나다.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명들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으며, 그렇게 불리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생각할수록 궁금한 일들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와 같은 궁금증을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여 형성된 것이 지명전설을 포함하는 민간어원설(folk-etymology)이다. 그러나 민간어원설은 지명이 가지고 있는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

민간어원설이 본래 지명이 가지고 있는 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인의 대부분은 지명을 한자(漢字)로 표기하고 한자음으로 부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고 한자음으로 부르다 보니 의례히 한자말 지명인 줄로 알게 되고, 한자말 지명인 줄로 알게 되다 보니 자연 지명을 한자 뜻으로 해석하게 되어 본래 지명이 가지고 있는 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이다.

사실 한자로 표기된 지명의 대부분은 한자말 지명이 아니라 우리말 지명을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이다.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게 된 것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물론이지만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의 문자생활이 한자(漢字)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려니 한자로부터 음(音)이나 훈(訓)을 빌려 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음이나 훈을 빌려 한자로 표기한 지

명들을 언제부터인가 우리말로 부르지 않고 한자음으로 부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한자말 지명인 줄로 잘못 알게 되어 본래 지명이 가지고 있는 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한자로 표기된 우리말 지명의 경우 지명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한자가 표기하고 있는 우리말 지명을 재구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말 지명을 재구하는 일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말 지명이 함께 전해지고 있을 때야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말 지명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명에 표기된 한자가 음을 빌린 것인지 훈을 빌린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조차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흔히들 광주(光州)를 ‘빛고을’ 이라고 하고, 창녕(昌寧)을 창녕의 옛 이름인 비사벌(比斯伐)에 기대어 ‘빛벌’ 이라고 한다. 광주의 광(光)을 훈인 ‘빛’ 의 차자표기라고 보고, 비사벌의 비(比)를 음의 차자표기라고 보아 그렇게 재구해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빛고을’ 이나 ‘빛벌’ 이 제대로 된 재구일까?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광(光)은 음의 차자표기이고, 비(比)는 훈의 차자표기이다.

어쨌든 어찌어찌하여 지명에 표기된 한자가 음을 빌린 것인지 훈을 빌린 것인지를 판별하여 우리말 지명을 재구했다고 치자. 정작 문제는 이제부터다. 우리말 지명을 재구해 놓고도 본래 지명이 가지고 있는 진실과는 거리가 먼 생각들을 한다. 사실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했건 훈을 빌려 표기했건 한자로 표기된 지명의 대부분은 음이나 훈의 음가(音價)를 빌려왔을 뿐 한자의 뜻까지 빌려온 것은 아니다. 만약 한자의 뜻까지 빌려왔다면 음을 빌린 경우는 한자말 지명이 되겠고, 훈을 빌린 경우는 지명의 한자말 번역이라고 해도 좋을 것인데 오히려 그와 같은 지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한밭이라는 우리말 지명이 대전(大田)으로, 한티라는 우리말 지명이 대치(大峙)

로, 잣뒤라는 우리말 지명이 성북(城北)으로, 뒷개라는 우리말 지명이 북포(北浦) 또는 후포(後浦)로, 안말과 넘말이 내동(內洞)과 외동(外洞) 등으로 표기된 경우 등 극소수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재구한 우리말 지명을 통해서 본래 지명이 가지고 있는 진실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뜻이 아닌 한자가 표기하고 있는 음가 자체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구한 우리말 지명과 현재 전해지고 있는 우리말 지명을 함께 놓고 음가 자체만을 주목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음가군(音價群)으로 묶일 수 있는 일련의 지명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일련의 지명들은 일정지역의 이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무수히 되풀이해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한 음가군으로 묶일 수 있는 일련의 지명들이 일정지역을 단위로 하여 되풀이하여 명명(命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음가군으로 묶일 수 있는 일련의 지명들이 일정지역을 단위로 하여 되풀이하여 명명되었다고 할 때 지명이 생성되던 당시 사람들이 일정한 틀을 가지고 일정지역에 이름을 명명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지명이 생성되던 당시 사람들은 어떤 틀을 가지고 일정지역에 이름을 붙였을까?

당연히 오방체계(五方體系)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민족도 일정지역을 구분하는 큰 틀은 오방체계였던 까닭이다. 방위 체계가 지명이 생성되는 틀이라고 할 때 하위지역을 서로 구별하는 말로 오방(五方)을 지칭하는 말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일정지역을 구분하는 말로는 중(中) 동(東) 서(西) 남(南) 북(北)을 지칭하는 말이 쓰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 동 서 남 북을 지칭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손목(孫穆)이 고려에 사신의 일행으로 다녀간 뒤 저술한 《계림유사(鷄林類事)》를 보면 ‘동서남북을 지칭하는 말은 중국과 같다.’는 기록이 있다. 손목이 고려에

사신의 일행으로 온 것이 고려 숙종 8(1103)년이니 그 이전에 벌써 우리말 대신에 한자말이 오방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오방을 지칭하는 말로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중(中) 동(東) 서(西) 남(南) 북(北)이라는 오방을 지칭하는 한자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물론이지만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의 문자생활이 한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려면 한자로부터 음이나 훈을 빌려 표기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한자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말이 한자말로 대체되는 사태가 야기되었고, 급기야는 우리말을 잃어버리고 한자말만 남게 된 경우가 허다하게 되었다. 그러한 까닭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오방을 지칭하는 말로 한자말인 중 동 서 남 북이 통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한자말인 이상 애초부터 이들이 오방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에는 틀림없이 우리말이 따로 있어 중 동 서 남 북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다가 한자말인 중 동 서 남 북이 들어와 쓰이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말을 밀어내고 우리말을 대신하여 오방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 동 서 남 북을 지칭하는 우리말은 무엇이였을까? 필자가 문헌에 보존되어 있는 지명들과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우리말 지명, 중 동 서 남 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말 등을 토대로 해서 중 동 서 남 북을 지칭하는 우리말을 재구해 본 바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중(中)을 지칭하는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뭍~막랏’의 형태이다. ‘뭍~막랏’은 ‘르’이 변이되거나 탈락하여 축약되기도 하고, ‘~’가 다른 모음으로 변이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이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들 변이형태는 보통 두

(頭) 수(首) 지(旨) 종(宗) 사(沙) 마(馬) 오(午) 두(斗) 꺾(槩) 논(論) 용(龍) 퇴(退) 수(水) 추(推) 형(兄) 장(長) 백(伯) 적(積) 합(合) 회(會) 취(聚) 길(吉) 도(都) 골(鶻) 응(鷹) 담(擔) 첨(檐) 산(山) 야(野) 등과¹⁾ 말(末) 모(母) 무(母) 무(無) 무(舞) 미(尾) 등²⁾으로 차자되어 오방의 중심에 있는 산이나 들 마을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고, 그곳 출신의 인물을 지칭하는 등에도 사용되었다. 지금도 살아남아 산의 보통명사가 된 뒬 메나 마을 뜻하는 말이나 산마루의 마루 등은 이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오방의 중심에는 ‘뒬~뒬’로 지칭되는 중심산(中心山)이 자리하게 마련이다. 고대사회에서 중심산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세계의 중심으로 인식되었고, 그러한 까닭에 중심산에는 의례 당집을 지어 신들을 모셨다. 그리하여 중심산은 ‘뒬~뒬’로 지칭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두에 당(堂)을 붙여 당산(堂山) 뒬뒬 뒬메 등으로도 지칭되었다.

당집에 모시는 신은 대체로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천신(天神)이고, 하나는 지모신(地母神)이다. 천신은 세계의 질서의 표상이고, 지모신은 세계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대지의 표상이다. 따라서 천신과 지모신은 서로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신화(神話)에서 천신과 지모신의 결합으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듯 천신과 지모신은 결합하여 세계의 질서를 내재한 대지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세계의 질서를 내재한 대지의 중심에 중심산이 위치한다. 그러므로 세계의 질서를 내재한 대지나 중심산은 천신의 대지나 산이자 지모신의 대지나 산이다. 그리고 그러한 까닭에 세계의 질서를 내재한 대지나 중심산은 신들을 지칭하는 말로도 불리는 동시에 ‘뒬~뒬’의 어두에 신들을 지칭하는 말을 붙여 부르기도 하였다. 천신을 뜻하는 우리말은

1) 이들은 훈의 차자이다.

2) 이들은 음의 차자이다.

‘훈’으로 추정되며, 태(太) 백(白) 등과 한(漢) 한(韓) 환(桓) 등으로 차자되었다. 그리고 지모신을 뜻하는 우리말은 ‘곰~ㄱㅁ’로 추정되며, 웅(熊) 흑(黑) 현(玄) 자(茲) 오(烏) 칠(漆) 구(龜) 오(鰲) 시(柿) 부(釜) 등과³⁾ 감(柑) 검(黔) 검(儉) 금(錦) 금(金) 금(衿) 금(今) 광(光) 광(廣) 공(公) 등으로⁴⁾ 차자되었다.

또한 중심산은 신화의 주인공이 탄생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신화의 주인공은 입사식을 통해서 어른으로 태어난다. 입사식에서는 천지창조가 되풀이된다. 신화의 주인공은 접신(接神)이 되어 태초(太初)에 천신과 지모신이 그랬던 것처럼 천지창조를 되풀이하여 체현(體現)한다. 그리하여 세계는 태초의 상태로 재창조되고, 신화의 주인공은 세계의 질서를 인식한 자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태초의 상태로 재창조된 세계는 우물이나 못 내 등으로 표상(表象)되었고, 그곳에서 세계의 질서를 인식한 자로 거듭 태어난 신화의 주인공과 함께 ‘을~으ㄹ’로 지칭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까닭에 태초의 상태로 재창조된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는 중심산 역시 ‘을~으ㄹ’로도 불리게 되었다. ‘을~으ㄹ’은 ‘ㄹ’이 변이되거나 탈락하여 축약되기도 하고, ‘~’가 다른 모음으로 변이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이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들 변이형태는 보통 압(鴨) 명(鳴) 나(奈) 내(來) 몽(蒙) 난(卵) 전(前) 영(永) 등(登) 등과⁵⁾ 알(闕) 아라(我羅) 아리(阿利) 아리(娥利) 울(蔚) 울(鬱) 등으로⁶⁾ 차자되었다.

다른 한편 중심산은 흔히 남산(南山)으로도 불린다. 중심산이 남산으로도 불리는 것은 고을의 중심부가 신들을 모시는 신성공간인 중심산을 남쪽으로 바라보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3) 이들은 훈의 차자이다.

4) 이들은 음의 차자이다.

5) 이들은 훈의 차자이다.

6) 이들은 음의 차자이다.

2)동(東)을 지칭하는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술~스르’의 형태이다. ‘술~스르’는 ‘르’이 변이되거나 탈락하여 축약되기도 하고, ‘~’가 다른 모음으로 변이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이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들 변이형태는 보통 반(盤) 반(蟠) 취(鷺) 차(車) 시(矢) 미(米) 송(松) 주(酒) 탄(炭) 정(鼎) 증(甑) 간(間) 신(新) 초(草) 조(鳥) 봉(鳳) 금(金) 철(鐵) 우(牛) 등과⁷⁾ 술(戌) 순(順) 등으로⁸⁾ 차자되어 오방의 동쪽지역에 있는 산이나 들 마을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고, 그곳 출신의 인물을 지칭하는 등에도 사용되었다.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동쪽을 뜻하는 새나 마을을 뜻하는 실, 높은 봉우리를 지칭하는 수리봉의 수리는 이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서(西)를 지칭하는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블~브르’의 형태이다. ‘블~브르’는 ‘르’이 변이되거나 탈락하여 축약되기도 하고, ‘~’가 다른 모음으로 변이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이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들 변이형태는 보통 화(火) 광(匡) 정(正) 취(嘴) 연(硯) 전(田) 염(簾) 적(赤) 단(丹) 주(朱) 자취(吹) 자(紫) 봉(蜂) 해(海) 천(遷) 성(星) 이(梨) 주(舟) 화(禾) 등과⁹⁾ 발(鉢) 발(發) 불(佛) 불(弗) 벌(伐) 등으로¹⁰⁾ 차자되어 오방의 서쪽지역에 있는 산이나 들 마을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고, 그곳 출신의 인물을 지칭하는 등에도 사용되었다.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들을 뜻하는 벌은 이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남(南)을 지칭하는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굴~ㄱ르’의 형태이다. ‘굴~ㄱ르’는 ‘르’이 변이되거나 탈락하여 축약되기도 하고, ‘~’가 다른 모음으로 변이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이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들 변이형태는 보통 완

7)이들은 훈의 차자이다.

8)이들은 음의 차자이다.

9)이들은 훈의 차자이다.

10)이들은 음의 차자이다.

(莞) 화(花) 문(文) 행(行) 동(銅) 목(木) 쌍(雙) 병(竝) 등과¹¹⁾ 골(骨) 갈(葛) 개(開) 귀(貴) 등으로¹²⁾차자되어 오방의 남쪽지역에 있는 산이나 들 마을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고, 그곳 출신의 인물을 지칭하는 등에도 사용되었다.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마을을 뜻하는 골은 이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북(北)을 지칭하는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들~드르’의 형태이다. ‘들~드르’는 ‘르’이 변이되거나 탈락하여 축약되기도 하고, ‘~’가 다른 모음으로 변이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이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들 변이형태는 보통 원(圓) 주(周) 입(入) 납(納) 석(石) 월(月) 감(甘) 환(還) 회(回) 회(廻) 양(梁) 계(鷄) 휘(喙) 교(橋) 족(足) 병(屏) 죽(竹) 승(升) 등과¹³⁾ 달(達) 대(臺) 등으로¹⁴⁾차자되어 오방의 북쪽지역에 있는 산이나 들 마을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고, 그곳 출신의 인물을 지칭하는 등에도 사용되었다.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앞뒤의 뒤나 평평한 땅을 뜻하는 들은 이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오방체계에 따라 방위를 지칭하는 말을 붙이는 방식이 지명이 생성되는 틀이고, ‘물~므르’ ‘술~스르’ ‘불~브르’ ‘굴~구르’ ‘들~드르’가 오방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때 지명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파악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지명이 생성되는 틀과 오방을 지칭하는 말들이 지명에 표기된 한자가 음을 빌린 것인지 훈을 빌린 것인지를 판별하여 우리말 지명을 재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 지명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밝혀줄 지남(指南)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1)이들은 훈의 차자이다.

12)이들은 음의 차자이다.

13)이들은 훈의 차자이다.

14)이들은 음의 차자이다.

2. 김해의 지명 몇 가지

2.1. ㅁ~ㅁㄹ

구지(龜旨 : 감마라(감퇴)) : 지(旨) (ㅁㄹ 지)

태종산(진영읍 太宗山 : 한마라(한퇴)) : 종(宗) (ㅁㄹ 종) : 태종산은 조선시대 알촌(荜+叱村)에서 칠석희(七夕戲) 때 태종신(太宗神)을 모셔오던 산이다.

산산리 마산(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蒜山里 馬山 : 말퇴)

2.1.1. 당(堂)

용당리(상동면 여차리 龍堂里)

당리(부산시 강서구 대저일동 출두리 堂里 : 당말)

당산(부산시 가락동 죽림동 堂山 : 당퇴)

2.1.2. ㅎ·꺄~ㄹㅁ

금관 김해 금주 금녕(金官 金海 金州 金寧)

태종산(진영읍 太宗山)

대동리 한곡(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大洞里 閑谷 : 한골)

구지(龜旨)

2.1.3. 올~으르

전산 난산(활천동 삼정동 前山 卵山 : 알뫼) : 《대동지지》에 전산도(前山島)는 망산도(望山島)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알촌면(荜+叱村面) : 알촌면은 조선시대 황산리(黃山里 : 진영읍 의전리(蟻田里)) 죽곡리(竹谷里 : 진영읍 죽곡리) 청천리(晴川里 : 진례면 청천리) 지역에 설치되었던 면이다.

명지(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鳴旨 : 알말)

2.2. 슬~스르

활천(활천동 活川 : 살내)

우동리(진영읍 牛洞里 : 소골(쇠골))

주동리 탄동(대동면 酒洞里 炭洞 : 술골)

2.3. 불~브르

불모산 부을무산 취무산(佛母山 夫乙無山 吹無山)

삼백천(주촌면 내삼리 三百川 : 세배내)

나전리 나현(생림면 羅田里 羅峴 : 벌말 벌고개)

2.4. 골~ㄹ르

가락(駕洛)

녹도 녹산(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菘島 菘山: 골섬 골뫼(가매들))

화현(대동면 감로리에서 대감리로 넘어가는 花峴: 골고개): 《계림유사》
에 화(花)를 골(骨)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2.5. 들~드르

감물야향 감물야촌 감물야(상동면 대감리 甘勿也鄉 甘勿也村: 달말)

달음포향 월촌리(대동면 월촌리 達音浦鄉 月村里: 달음개 달말)

북포리 후포(장유면 유하리 北浦里 後浦: 뒷개)

3. 이야기를 마치며

필자가 지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신화를 공부하면서부터이다. 처음에는 신화에 등장하는 지명에만 관심을 갖다가 차츰 지명의 표기에 사용된 차자방식 등 지명 일반으로 관심이 확대되었는데 그 결과물로 외람되어 출간하게 된 책 중의 하나가 김해문화원에서 2005년도에 출간한 『김해(金海)의 지명(地名)』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지금의 김해시 지역은 물론 지금은 부산시 강서구가 된 강동동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대저동 지역과 지금은 창원시가 된 대산면 지역의 지명들을 살펴보았다. 『김해의 지명』을 낸 지 십년이다 되어간다. 그러다가 필자는 올봄 또 다시 김해와 관련된 책 하나를 출간하였다. 『역주(譯註) 김해읍지(金海邑誌)』가 그것이다. 이 책들이 아무쪼록 김해시 지역문화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제12기 가야학아카데미 -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 교육과정

- 일시 : 2014.9.24.~11.26. 매주 수, 오후 2시~4시(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비고
1	9.24.	김해의 지명에 대하여	민궁기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2	10.1.	김해의 불교	조원영	합천박물관 학예연구사	
3	10.8.	청동기시대의 김해	배진성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4	10.15.	낙동강과 김해의 역사지리	김덕현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5	10.22.	<답사> 김해문화유산답사	송원영	대성동박물관 학예연구사	
6	10.29.	김해의 유교문화	김훈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7	11.5.	김해왜성과 그 의미	나동욱	부산근대역사관장	
8	11.12.	이학규의 시문을 통해 본 김해의 옛 모습	김성진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9	11.19.	김해 제염업의 역사	유승훈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10	11.26.	김해의 한글학자 눈뵈 허웅	하치근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 강의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